

# 나경원 “경제청문회 후 추경심사 하자”

### “이인영에 촉구...부디 진정어린 결단 내려달라” “대외여건 때문인지 소주성 때문인지 규명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자신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하자”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지금과 같은 밀 빠진 복에 불 붙는 추경은 안 된다. 여야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추경을 해야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마저 힘의 논리로 날치기 상정된 사상 초유의 페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 앞에서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했다”며 “그런 저희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선적인 정치 앞에 우리당은 참으로 괴로운 고민을 해왔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의 그런 충정을 백기투항을 강요하는데 악용했다”며 “제1야당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갖고 이곳에 돌아오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도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 경제를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당은 예산심의권이란 헌법상 고유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추경은 수단이다. 애초 재해제난복구와 민생해결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추경으로 국민에게 또 빚을 지겠다고 한다. 돈이 모자라 적자 국제 3조6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청년 세대의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빛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재정 포퓰리즘이 국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당은) 추경이 안 돼 경기 어려운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국민 대표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말대로 (경제위기가) 대외여건 때문



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 문제 때문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뒤에야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같이 따져보지”며 “경제정책에 자신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 없다고 하지 않나.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았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고 했다.

발표가 끝난 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국회정상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묻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살리기 법안보다 추경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경제청문회 논의를 끝

이 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경제청문회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지세하는 얘기 못했지만 청문회를 하게 되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고, 증인으로 전문가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페스트트랙 합의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는 “합의처리에 대한 진정성과 경제청문회의는 꼭 연계돼 있다고 보진 않는다”라며 “지금은 페스트트랙 폭거로 인한 비정상적 국회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상국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당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평화당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방랑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라”

민주평화당은 16일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방랑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내년 선거가 총선이 아닌 대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 “국회는 멈춰있는데 야당 대표가 푸드트럭에 올라가고, 육아 페스티벌하고 요리하고, 아내와 만남을 부러니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불행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페스트트랙

“황, 내년 선거가 총선 아닌 대선으로 착각하나”

“국회 일정 붙잡고 3년 뒤 대선행보는 도리야나”

그는 “국회법에 정해진 국회일정을 붙잡아두고 3년 후에 있을 대선 행보를 하고 다니는 것은 불과 2년 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한 정치인으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평가들이 나오니 같은 당 내에서

을 철저히하는 이치에도 닿지 않는 조건을 걸어둔 탓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을 터이니 토 달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 故이희호 빈소에 전달됐던 ‘김정은 조화’, 영구 보존 예정

### 2009년 DJ 서거 때 김정일 조화도 보관 중



고(故) 이희호 여사 빈소에 보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근조 화환은 보존화 작업을 거쳐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이 여사의 빈소에 조전과 조화를 보냈다. 흰색 국화꽃과 검은색

리본으로 꾸며진 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와 함께 이 여사의 영전 바로 옆에 자리했다.

이 여사의 장례 절차는 14일 추모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김대중평화센터는 김 위원장이 보낸 조화의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보존화 작업을 거쳐 영구 보관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의 조화는 영결식 전날인 지난 13일 밤 김대중도서관으로 옮겨졌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김대중도서관으로 옮겨진 조화는 현재 수장고에 보관 중”이라며 “다음주 정도 회의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조화가 특별 관리되는 건 남북관계의 상징성도 크지만 북측이 최고지도자의 면면에 유독 예민한 탓도 있다. 지난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북한 응원단 현수막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북측 응원단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경북 예천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북녘동포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에는 남녘과

북녘이 하나돼 만남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다.

문제는 비가 온 탓에 현수막이 찢은 채로 장승과 나뭇가지 사이에 걸린 걸 북한 응원단이 본 데서 시작했다. ‘태양처럼 모셔야 할 장군님을 나무에 내걸었다’고 노발대발했다. 일부 응원단원은 “장군님의 얼굴이 비바람에 노출되는 곳에 걸려 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장군님의 사진을 둘 수 있느냐”며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보낸 조화에서 꽃이라도 떨어지거나 훼손되면 북한이 반발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있었고 영결식 전날 극비리에 경찰을 동원해 김대중도서관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수순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文대통령, 북유럽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간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오후 12시50분 전용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부수석 등이 마중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해 각국 정상회담들과 정상회담

을 갖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오슬로포럼 연설, 스웨덴 의회 연설 등 두차례의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화’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방문국들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건설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뉴스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